

2019년 7월 17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트럼프 발언 여파로 하락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갈 길이 멀다”

미 증시 변화 요인: ①트럼프 발언 ②파월 발언 ③경제지표 ④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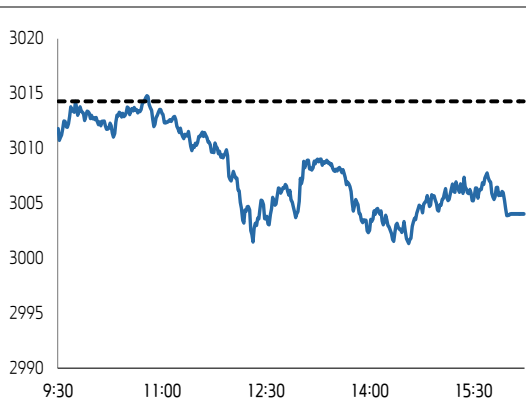
미 증시는 개선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이슈가 약화되며 하락 출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매물 출회되며 낙폭 확대. 이런 가운데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이 이어지며 한때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음(다우 -0.09%, 나스닥 -0.43%, S&P500 -0.34%, 러셀 2000 +0.01%)

미 증시는 상승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①트럼프 발언 ②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 ③경제지표 ④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변화. 미 증시 시작 전 주요 금융주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함. 이 영향으로 금융주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웰스파고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인하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하락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를 보임. 한편, 6 월 미국 산업생산은 예상보다 부진(mom0.0%) 했으나, 소매판매가 예상을 상회(mom+0.4%)하자 금리인하 이슈 약화에 따른 매물 출회. 이를 감안 시장은 금리인하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편, 오늘은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 발언이 많았음. 특히 파월 연준의장은 “완화적인 스탠스의 근거가 강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 하방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다” 라고 주장. 더불어 “연준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이라고 언급하는 등 비둘기적 발언을 함. 여기에 중도 매파적이자 지난 6 월 24 일 금리 동결을 언급 했던 로버트 카플란 달러스 연은 총재는 “금융시장의 신호를 볼 때 금리인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라고 주장. 최근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언급

그러나 미 증시 하락을 야기시킨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었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은 갈 길이 멀다” 라고 부정적인 언급을 함.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시진핑과의 관계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 라고 주장.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과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관련된 일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91.87	+0.45	홍콩恒生	28,619.62	+0.23
KOSDAQ	674.42	-0.05	영국	7,577.20	+0.60
DOW	27,335.63	-0.09	독일	12,430.97	+0.35
NASDAQ	8,222.80	-0.43	프랑스	5,614.38	+0.65
S&P 500	3,004.04	-0.34	스페인	9,377.10	+0.57
상하이종합	2,937.62	-0.16	그리스	855.91	+0.54
일본	21,535.25	-0.69	이탈리아	22,204.08	+0.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부진

JP모건(+1.07%)과 골드만삭스(+1.86%)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순이자 마진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당 상향 조정 언급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반면, 웰스파고(-3.02%)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CEO가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한 점이 영향을 줬다. 그 외 J&J(-1.64%)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대비 둔화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도미노피자(-8.66%)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와 동일점포매출을 기록한 이후 급락했다.

마이크론(-3.02%)은 UBS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37달러→47달러) 했으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트럼프의 발언 이후 하락 했다. UBS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반도체 칩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관련 이슈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한편,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코노코필립스(-1.48%), EOG리소스(-1.65%) 등 에너지 업종도 하락 했다. 반면 델타항공(+2.37%) 등 항공주는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96%	대형 가치주 ETF(IVE)	-0.25%
에너지섹터 ETF(OIH)	-1.64%	중형 가치주 ETF(IWS)	-0.18%
소매업체 ETF(XRT)	+0.19%	소형 가치주 ETF(IWN)	+0.27%
금융섹터 ETF(XLF)	-0.25%	대형 성장주 ETF(VUG)	-0.45%
기술섹터 ETF(XLK)	-0.93%	중형 성장주 ETF(IWP)	-0.3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7%	소형 성장주 ETF(IWO)	-0.14%
인터넷업체 ETF(FDN)	-0.64%	배당주 ETF(DVY)	-0.16%
리츠업체 ETF(XLRE)	-0.1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4%
주택건설업체 ETF(XHB)	+0.8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2%
바이오섹터 ETF(IBB)	-0.57%	미국 국채 ETF(IEF)	-0.22%
헬스케어 ETF(XLV)	-0.50%	하이일드 ETF(JNK)	-0.23%
곡물 ETF(DBA)	-0.78%	물가연동채 ETF(TIP)	-0.16%
반도체 ETF(SMH)	-1.03%	Long/short ETF(BTAL)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7.15	-1.13%	-0.12%	+3.45%
소재	367.37	+0.19%	+1.64%	+2.73%
산업재	662.02	+0.65%	+2.44%	+4.94%
경기소비재	987.40	-0.18%	+1.78%	+5.40%
필수소비재	617.20	+0.01%	+1.54%	+2.60%
헬스케어	1,066.40	-0.50%	-1.09%	+0.87%
금융	466.27	-0.26%	-0.05%	+4.47%
IT	1,415.80	-0.91%	+1.32%	+6.19%
커뮤니케이션	170.73	-0.06%	+1.81%	+4.81%
유틸리티	306.93	-0.57%	-0.49%	+0.64%
부동산	232.86	-0.18%	-1.15%	-0.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0%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4%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552 계약) 여파로 1.05pt 하락한 273.6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8.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 변화 요인 중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연준 위원들의 금리인하 시사 언급을 들 수 있다. 이 중 무역분쟁 이슈는 중국 정부에 이어 트럼프의 부정적인 발언을 감안 장기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관련 이슈로 미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과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우려는 전일 한국 증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줬던 이슈였던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연준 위원들 조차 금리인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언급했다는 점은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가 급락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의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란과의 협상 언급으로 장중 4%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이렇듯 글로벌 금융시장은 영향을 주는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치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도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종목별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변화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6 월 미국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mom +0.1%)를 상회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7% 증가하는 등 견고한 소비 움직임을 보였다.

6 월 미국 산업생산은 예상(mom +0.1%)을 하회한 전월과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제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견고함을 보였다. 다만 공장 가동률(78.1%→77.9%)은 둔화되었다

6 월 미국 주택시장지수는 전월(64) 보다 개선된 65 로 발표되었으며 예상과 부합되었다. 5 월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쳐 예상(mom +0.4%)을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매물이 출회되었다. 여기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이 결과 장중 한 때 4%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하다 결국 3.3% 하락으로 마감 했다.

달러화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전일 이란 외교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협상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엔화가 약세폭을 확대한 점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줬다. 한편,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영국 존슨을 비롯한 차기 총리 후보들이 '안전장치 수용 불가'를 언급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연준위원들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관련 발언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속에 이날 발표된 소매판매, 제조업생산, 주택시장지수 등이 견고한 개선세를 이어갔다는 점이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으나, 채권시장에는 영향이 제한되었다.

금은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에 기반해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1%, 철근도 0.12% 하락 했다. 특히 장중 낙폭이 확대되다가 미국의 제조업생산 개선 등이 이어지자 낙폭이 축소되며 마감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7.62	-3.29	-0.36	Dollar Index	97.382	+0.46	-0.11
브렌트유	64.35	-3.20	+0.30	EUR/USD	1.1208	-0.44	0.00
금	1,411.20	-0.16	+0.76	USD/JPY	108.27	+0.33	-0.53
은	15.678	+2.04	+3.51	GBP/USD	1.2409	-0.85	-0.45
알루미늄	1,850.00	+0.43	+1.59	USD/CHF	0.9879	+0.35	-0.57
전기동	6,012.00	+0.48	+3.26	AUD/USD	0.7012	-0.38	+1.21
아연	2,482.00	+1.55	+5.04	USD/CAD	1.3085	+0.28	-0.33
옥수수	441.25	-1.29	+0.91	USD/BRL	3.7686	+0.31	-0.72
밀	507.50	-0.05	+0.94	USD/CNH	6.8819	+0.12	-0.20
대두	906.00	-1.52	+0.19	USD/KRW	1177.60	-0.14	-0.25
커피	105.55	-4.26	-1.77	USD/KRW NDF1M	1178.85	-0.05	-0.2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110	+2.09	+4.48	스페인	0.487	-1.60	+7.10
한국	1.570	-1.10	+3.00	포르투갈	0.548	-3.30	+7.90
일본	-0.119	-0.50	+1.90	그리스	2.225	-6.60	+4.10
독일	-0.244	+0.70	+11.00	이탈리아	1.609	-3.70	-12.20